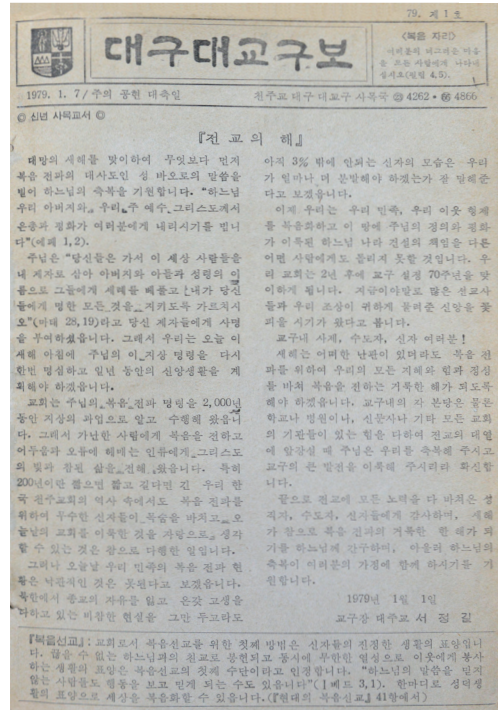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청소년 주일)** 2016.5.29.(다해) 제2000호



대구주보 제1호 (1979.1.7.)

† 오늘의 전례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루카 9,17)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 주시어 우리를 살리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일 성찬례를 거행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성체와 성혈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 이웃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일이기도 한 오늘, 교회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1독서 창세 14,18-20

제2독서 1코린 11,23-26

복 음 루카 9,11-17.

입 당 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화 답 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리라.



시류를 거스르는 용기

주국진 보나베틀라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교구 청소년국에서는 매년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해외 봉사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은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일상의 작은 일에 행복해하는 현지 주민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라는 주제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고 있으며, 지난 4월 24일은 청소년을 위한 희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희년 담화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시류를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대한 이상들에 바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 “시류를 거스르는 용기”, “위대한 이상”과 같은 말은 공부와 대학 입시에 매몰된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에 방해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부모들의 원망어린 말도 들리는 듯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랑과 우정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정의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자비심 또한 넉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관하여 들려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더 높은 가치와 위대한 이상을 향하여 도전할 용기를 내 비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 시류를 거스르는 도전이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류를 거스를 용기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도 크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격려해주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우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영원한 은총의 때를 선포하고 완성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셨습니다(루카 4,18-19 참조). 예수님 안에서, 특히 그분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희년의 가장 깊은 의미가 완성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하면 우리는 모두 놀라운 은총의 때를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특별히 자비의 성년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교회에 맡기신 임무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때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참으로 구체적이며 우리 모두는 직접 그 자비를 체험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열일곱 살이던 때의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다가 먼저 성당에 가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깊이 신뢰할 만한 신부님을 만나게 된 저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제 마음을 열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겸손하게 숨김없이 마음을 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성당에 가려고 첫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 신부님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고해성사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포용을 느끼고, 고해소가 자비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지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단

점과 잘못에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희망으로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영원한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참행복은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신 그분의 자비로운 시선에 여러분을 여십시오. 그 눈길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도, 이기주의와 증오와 깊은 절망으로 상처 입은 이 세상에서 활동과 말과 기도로 자비의 사도가 되십시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말씀대로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와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의 불길을 전하십시오. 이러한 사명에서 저는 격려와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강복을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은총의 시기, 자비의 희년살이

오숙연 체칠리아 | 옥수성당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비의 대희년을 선포 하신지도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의 감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사그라들고, 이러다 내 생애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은혜로운 시기를 어영부영 보내버리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한 번 되돌아보자. 이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내 인생의 길에 서서 내가 달려온 길을 한 번 되돌아 보자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20여 년 전 세상을 뜨신 성철스님의 열반송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 “평생 과업과태산(平生過業過泰山)”이라던 기사를 읽고, 절에서 지낸 고승이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 하고 의아해 했는데, 이제 내가 늙어 내 삶을 돌아보니 천번만번 이해가 되고 태산을 몇 개나 합쳐도 모자랄 나의 큰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구나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즉에 주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그래도 고비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끌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과 도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깨우침도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그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사랑해줄 수도 있었는데, 좀 더 배

꿀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뜨고 안 계시거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모여 우리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자고 의논했는데 내가 만들어야 할 목록은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참으로 빛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느님께 빛지고 세상에 빛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참으로 빛진 자인 내가 만들어야 할 리스트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채무리스트가 되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은혜로운 특별대희년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의 은인들을 찾아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로 불러오도록 힘쓰고, 세상을 뜬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대사의 은총을 받아드리고, 물질로 갚아야 할 사람은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기워 갚아가며 이 리스트를 지워 나가는 것으로 희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기만하고 미처 돌려주지 못한 빛을 청산할 수 있다면 나는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게 이런 깨우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시편 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23.5)” 

햇볕 한 줌

세월 낚는 낚시꾼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짐승도 못 잡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실망한 문왕은 우연히 강가를 지나가다가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문왕은 문득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낚시를 즐겨 하시나 봅니다. 뭘 좀 잡으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군자는 뜻을 얻음을 즐기고, 소인은 이익을 얻음을 즐깁니다. 낚시질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지요. 저는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한 눈에 비범한 사람임을 알아챈 문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낚시질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무엇이 비슷한지 말해줄 수 있겠소?”

노인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낚시에는 세 가지의 심오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끼로 고기를 낚는 것인데 이는 녹을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는 좋은 먹이로 더욱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인데 이는 인재에게 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런 신하가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 요리법이 다르듯 인재의 성품과 됃됨이에 따라 벼슬을 달리 맡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의 나이 72세에 처음으로 문왕을 만났으며, 문왕은 그를 태공망(太公望)이라 칭하며 국사로 봉했습니다. 태공망은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을 도와 폭군 주왕(紂王)을 죽이고 주(周)나라를 건국하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월을 낚던 ‘강태공’이었습니다. **한글**



교구장 동정

■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미사



사진제공 : 월간 <빛>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미사가 5월 22일(일) 오후 3시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대구주보 2000호 기념 이벤트

• 대구주보 2000호 기념 신앙수기 공모전 수상자

우수상(각 50만 원) : 『은총의 시기, 자비의 희년 살이』 옥수성당 오숙연(체칠리아),
『남편이 변했어요』 상모본당 송윤점(베로니카)

장려상(각 30만 원) : 『아부지』 황금성당 이수희(안젤라), 『용서의 꽃』 두류본당 이유정(아녜스),
『주님과 함께한 나의 삶』 소화성당 이재연(루피나)

• 대구주보 최다보유 수상자

대봉성당 조성구(요셉), 성동성당 권준철(바오로), 소화성당 이분세(데레사)

※ 신앙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은 선정작이 없습니다. 시상과 관련하여 상기 수상자들에게는 개별 통보 해드립니다.

대구주보 2000호 기념 전시회 퀴즈 5. 30.(월)~6. 10.(금) 교구청 내 안익사 특설 전시장

1. 대구주보 제1호는 1979년 1월 7일 () 대축일에 시작되어
2016년 5월 29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2000호 주보를 맞이하게 된다.
2. 대구주보의 제호는 1979년 “대구대교구보”- 1985년 () - 1987년 “대구주보”로 변경 되었다.

※ 괄호안에 정답을 적고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전시장에 비치된 퀴즈응모함에 넣어주세요. 매일주말, 공휴일 제외)
1분씩 추첨을 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전시장에서조차 즉석 응모 가능)

⑥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청소년 주일)

미 사 안 내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1일(수) 19:00 근화여고 경당	이주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6월 4일(토) 11:00 대안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1일(수) 11:3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6월 4일(토) 11:00 성모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4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	-

성소 | 피정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6.11(토) 14:00

대상: 고1~30세 미만 미혼 남성

문의: (010)9487-9182

6월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6.11(토) 15: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현충로역)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

문의: 이마리오 신부, (010)7507-6005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6.4(토) 10:00

일정: 10:00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안수) 면담 및 고해성사

버스: 영남대역 4번 출구(9:30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6.21(화)~22(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교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상반기 성소 식별 피정

기간: 6.18(토)~19(일) / 2만원

장소: 톡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교육 | 모집 | 기타

군위 소보동지 에니어그램

일시: 6.5(일) 10:00~16:00

7.2(토) 10:00~16:00

강사: 김연희마리아 수녀

대상: 누구나 / 회비: 1인 10만원

신청: (010)2649-2045

Road Of Lord

기도방법 찾아가기(강의·기도)

일시: 격주 주일 15:00~17: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앗숨성당

대상: 남녀 청년(만35세 미만)

신청: (010)9286-2247

19회 슈발리에 축제

기간: 6.24(금)~26(일), 강화도피정의집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 / 6만원

접수: 5.22(일)부터 선착순 50명

주최: 예수성심전교수녀회·수도회

문의: (010)4203-3217 / (010)5605-695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피지 선교 체험

기간: 7.26(화)~8.5(금) 10박 11일

대상: 고1~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200만원(유류할증료 및 세금 포함)

신청: (02)924-3048

여름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기간: 7.16(토)~8.14(일) 4주

장소: 필리핀광상한마리아의아들수도원

대상: 초4~중2 / 문의: (031)207-4982

주최: 마리아의아들수도회

<http://blog.naver.com/cficengcamp>

남인도, 스리랑카 성지순례 및 체험여행

기간: 8.6(토)~18(목) 선착순 35명

대상: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가족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Yi Sang Dong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라파엘베이킹스튜디오
314-3424

- 한국라이스레이대구북구통합센터
- 앙글플라워 자격증반
- 라이스레이, 라이스스쿨 자격증반
-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반
- 앙글플라워 떡케이크 예약주문
- 쌀베이킹전문, 무지개 쌀케이크
- 행사 답례품 ☎ 053)314-3424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행사 | 모임

파스카청년성서모임 40주년 감사미사

일시: 6.5(일) 14:00, 범어대성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대상: 파스카청년성서가족, 청년
문의: 255-1582

제37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기간: 6.13(월)~17(금) 14:00~17:00
장소: 교구 별관 대화합실 / 마감: 6.7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및 소공동체 봉사자
수강료: 3만원(함께하는 여정 교재포함)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제3회 초등학교원 신앙대회

일시: 6.25(토) 10:00~16:3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고성성당 새성전기금 마련 뮤지컬 공연

새성전 건립을 위한 뮤지컬에 초대합니다
기간: 9.23(금)~25(일)
장소: 오페라하우스 / 문의: 352-1412
제목: 서울할망 정난주

교육 | 모임

3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6.11~7.10(매주 토) 5주간
5주차 1박 2일 가족 피정
장소: 1대리구청 / 15만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미혼 자녀의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대구대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

25주년 역사사진 찾기

대상: 본당내 복지활동 사진(1991년 ~2008년) / 마감: 7.31(일)
문의: 교구 사회복지회, 253-9991
사진 제출자 소정의 상품지급 예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꿈트리 모집

대상: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위치: 지하철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 www.cumtree.or.kr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매주(일) 18:00
오디션 후 파트결정합니다
문의: (010)3817-1963 / (010)3516-1911

관덕정 영성특강

일시: 6.4(토) 16: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성당
강사: 안동교구장
권혁주(요한크리스스토모) 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무료상담), 사이

버상담 / 상담전화: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노인요양원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 장기요양 1~5등급
위치: 대구 북구 사수동(팔달교 인근)
문의: 파티마홈, 324-1188

대가대 평생교육원 여름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양과목 개설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기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마감: 6.18(토)
개강: 6.20(월) / 신청: 660-5554~7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원성광(하상 바오로), 이희영
(울리안나), 손종일(라우렌시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어르신들의 안전한 병원생활을 도와
주실 간호사선생님을 구합니다
문의: 간호과장, (010)9391-2643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주소록은 2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판매가: 5천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왕읍 유등리 730번지

참소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정도서관 맞은편

미소나라 MISONARI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 질환 아토피|알레르기|시미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홍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JS 전기조명
LED 전문시공 인테리어 설계
밝고 긴 수명, 전기료 절감
대표 안 준 영(대진안드레아)
안 승 재(베드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1666 전기조명관 120호
☎ 053)604-4589 | 010-3693-8816

스피치 킴의 가장 핵심입니다!
Speech.Kim 스피치 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 검색: 김민지(사바나)

HNT 하나투어
(주)이시아투어&(주)킴스여행
2016년 대회년 자비회해 선포기념
이태리 일주(로마방문) 9일
출발일: 6월 27일
☎ 053-956-8888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발아플덴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